

Macro

Economist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RA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한국 1Q GDP, 민간소비덕에 역성장 피했다

서비스 소비가 반등하면서 한국 GDP는 +0.3% 성장. 설비투자는 냉각되는 모습

- 한국 1분기 GDP 성장률은 QoQ +0.3%, YoY +0.8%로 예상치(QoQ +0.2%, YoY +0.9%)를 소폭 상회하였다. 마스크 조치 해제와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0.5%(기여도 22.4Q -0.3%p → 23.1Q +0.3%p) 반등한 영향이다.
- 서비스 소비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자과 순수출 모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4개분기 만에 -4.0%(기여도 22.4Q +0.2%p → 23.1Q -0.4%p)로 마이너스 전환한 가운데, 순수출 기여도(22.4Q -0.6%p → 23.1Q -0.2%p)는 4개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건설투자(22.4Q +0.1%p → 23.1Q 0.0%p)도 +0.2%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올해내 약한 성장세 보이며 한국 GDP는 +1.3% 성장을 기록할 전망

- 2분기 한국 경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가계 소비 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소비심리는 지난해 11월 저점을 찍은 후 정체되어 있으며, 고물가금리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가계신용지표도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꺾인 가운데, 정부 일자리에도 최근 일자리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편으로 2022년말 기준 전체 가계 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4.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부담과 역부의 효과로 인해 소비가 개선되기 쉽지 않다. 2~3분기가 관광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서비스 소비는 양호한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으나 그 외 소비의 유의미한 반등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민간투자자도 소비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경기는 올해 들어 건설기성 및 수주 모두 반등하고 있으나, 원재료 상승과 부동산 위축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냉각 조짐을 보인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대외수요는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분기 중국 소매판매를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로 내구재 소비 반등은 더디다. 이런 영향으로 4월 20일 누적 중국향 수출도 감소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미국 소비는 신용위축 영향으로 2분기부터 재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금액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1분기대비 점차 축소되겠지만, 2분기까지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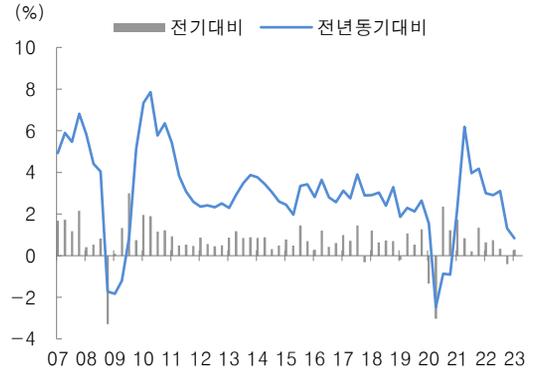
- 올해 한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대외 수요 개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내 경기도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함에 따라 약한 성장세를 이어나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에 따른 수혜와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2023년 한국 GDP성장률은 기존 당사 전망치인 +1.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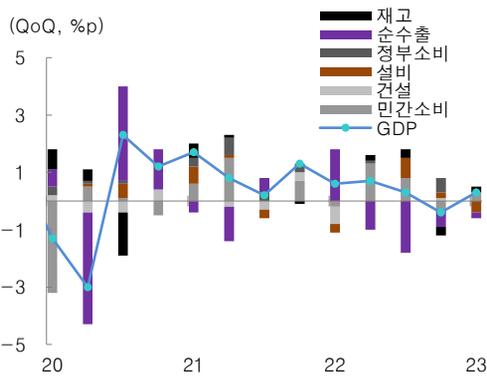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한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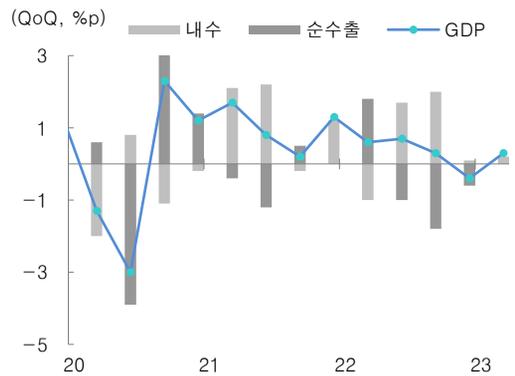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지출별 GDP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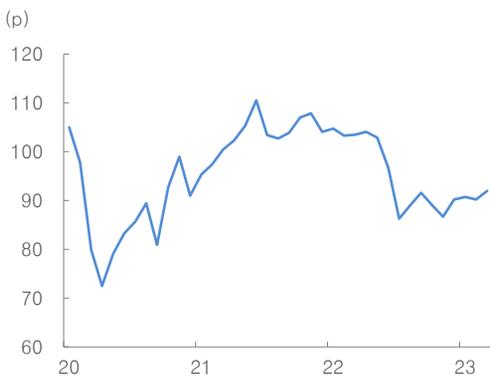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한국 내수 및 순수출 GDP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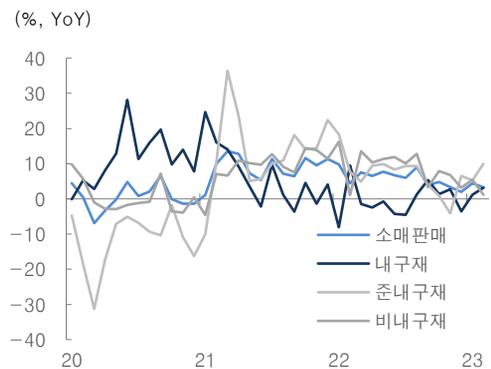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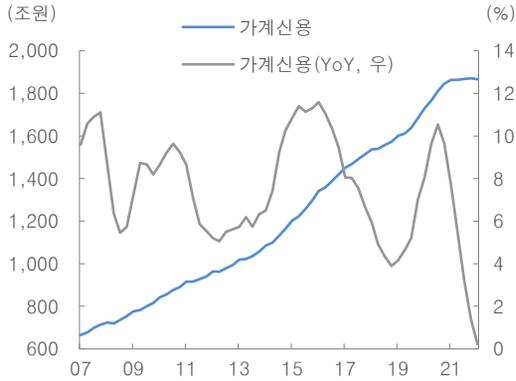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한국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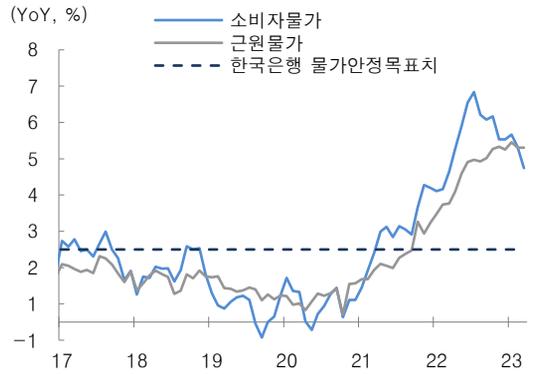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한국 가계 신용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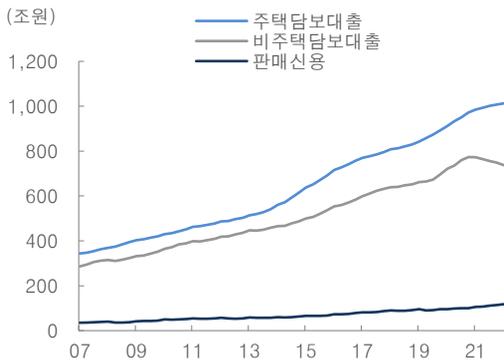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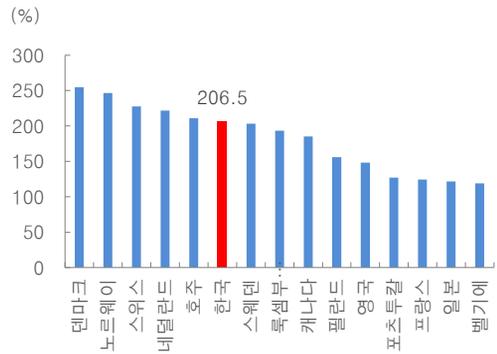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한국 항목별 가계 신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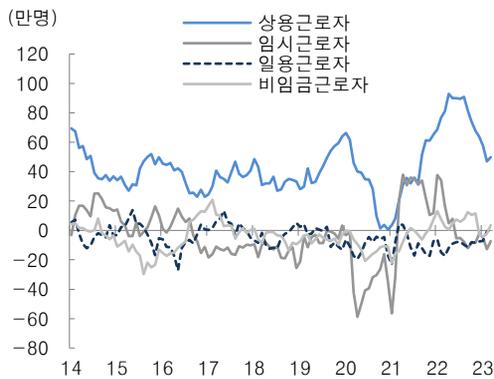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국가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2021년)



자료: OEC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한국 고용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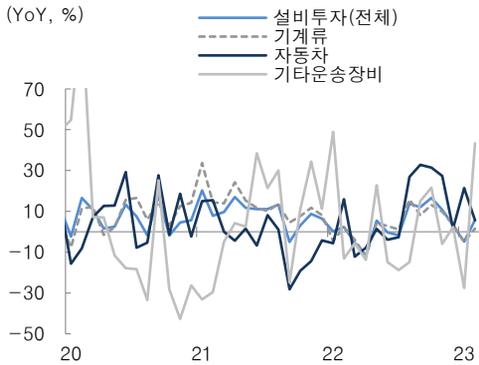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한국 제조업 재고율과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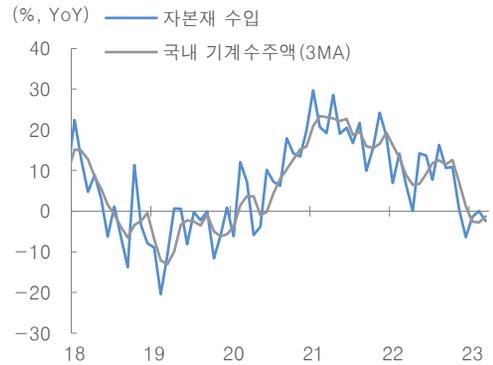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한국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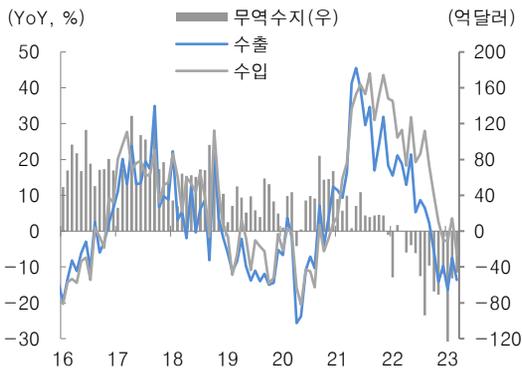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한국 자본재수입과 국내기계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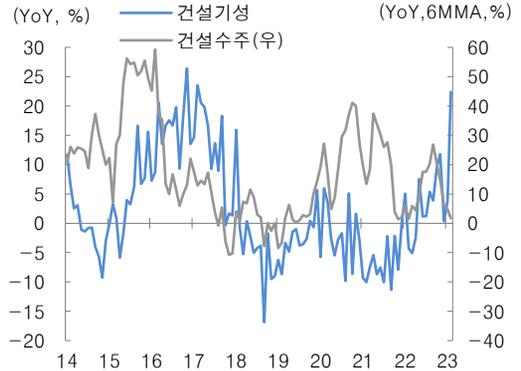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한국 수출 및 수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 한국 건설기성 및 수주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다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